

# 해외출장(시드니) 요약

부서 : 전략연구단 / 연구기획실

자료제공 : 김묵한 / 황민섭

작성일 : 2022년 11월 24일

## 제목 : [해외출장노트] 해외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 사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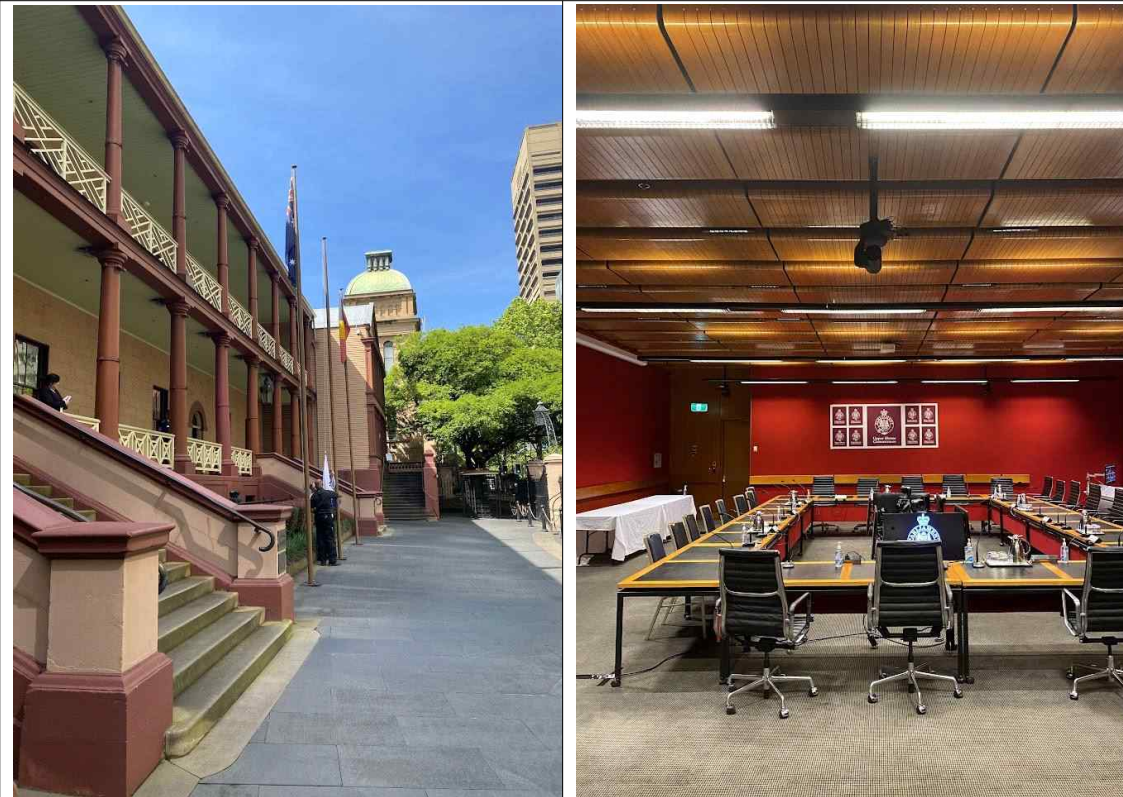
※ 서울연구원은 2012년 10월부터 해외출장보고서를 발췌,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 출장배경

- 스타트업 지원, 해외 투자유치 강화 및 방문자 경제 고양 등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최근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호주 시드니 출장을 통해 분야별 책임자가 같이 관계기관을 방문하고 답사함으로써 다양한 도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조사 및 정책 적용 가능성을 검토

### ○ 주요 현장사진

#### ■ NSW 주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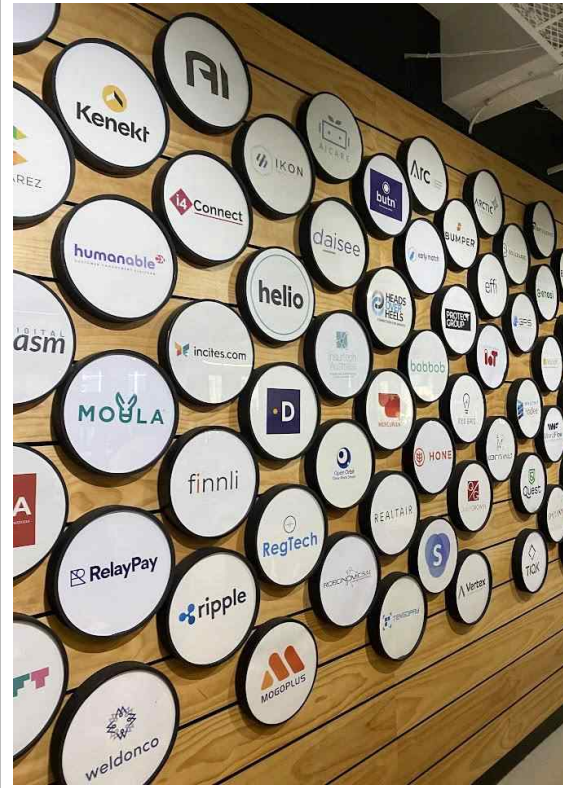
■ 시드니 컨벤션센터와 파워하우스 뮤지엄



■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



■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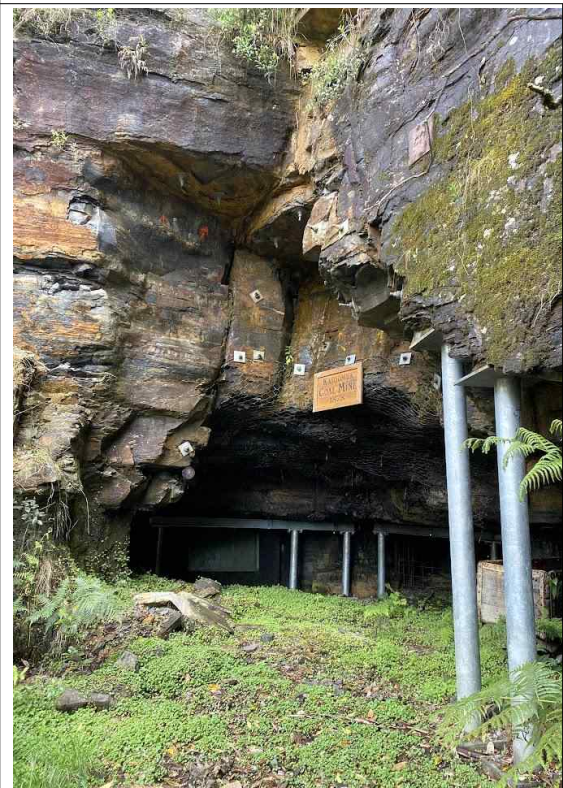
■ 시드니 컨벤션센터와 파워하우스 뮤지엄



■ 웨스트필드 시드니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 달링 하버 / 킹스트리트 워프



■ 고스포트 파머스마켓



## ■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 ○ 시사점

- 1) 스타트업 지원: 공공은 관리하되 민간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조 관철
  - NSW 주는 계획을 통해 주요 산업 및 무역 영역을 선정하고 해당 영역에서의 스타트업 육성 및 스케일업으로의 발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정부 내 조직인 NSW 투자청을 통해 스타트업 지원 조직을 운영
  - 시드니 스타트업 허브 등 스타트업 지원 측면에서 NSW 투자청은 시설은 관리하되 실제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프로그램은 선별한 민간기업에 일임하고 보조금이나 공모 등의 공공 사업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공공-민간 역할 구분
  - 고스포트 파머마켓의 경우에도 공공은 고스포트 쇼그라운드를 관리할 뿐 실제 직거래장터의 운영과 로컬 기업의 육성은 민간 기업에 맡기는 형태로 시장을 통한 지원 기조를 명확하게 유지
  
- 2) 해외 투자유치 강화: 연방-주 정부 협력을 통한 경제개발기구 조기 성장 지원
  - NSW 투자청은 초기에 총리 산하 기구에서 이후 주 정부 산하 그룹으로 포함되었으며, 정부 내 조직으로 시설 확보, 제도 활용, 조직 규모 확대, 해외 거점 확보 등을 빠른 시간 내에 성취
  - KOTRA 시드니 무역관에 따르면 호주는 코로나 19 위기를 넘어 최근 경제 활황기를 맞고 있으며, NSW 투자청은 기존 천연자원 중심의 무역과 투자를 넘어 한국과 미래 산업 투자유치를 꾀하는 상황으로 최근 서울시에도 오피스를 개소
  - 서울시도 비슷한 시기에 서울산업진흥원 내에 유사 기구인 인베스트 서울을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통한 NSW 투자청과의 협력 제언 필요

- 3) 방문자 경제 고양: 지역 매력도를 높이는 장소마케팅을 통한 글로벌 랜드마크의 조성
- 웨스트필드 시드니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대담한 랜드마크의 개발이 어떻게 도시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장소 마케팅의 사례로 여기에는 국제적인 인재나 조직의 역할이 주요했던 상황
  - 달링 하버 일대는 역사적으로 항구이자 만이었던 지역에서 주민과 방문자가 모두 즐겨 찾는 여가와 오락,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중심업무지구로의 근접성과 공동 교통 중심지로서의 위상, 그리고 주거-업무-상업 복합개발의 시너지를 감안한 워터프론트 개발이 주요
  - 블루마운틴 국립공원은 호주의 자연과 역사를 관광자원화 한 사례로서 스타트업 지원 사례에서와 같이 정부는 국립공원을 관리하되 관광자원화는 민간에 위임하는 역할 분담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진 상황
  - NSW 투자청은 경제 개발과 투자 유치의 일환으로 내부 기능에 방문자를 유치하는 방문자 경제 활성화를 기능으로 두어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

자료제공 및 문의처 :  
전략연구단 김목한 연구위원 (2149-1248)